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성소수자 관련 인식
- ② 2024 여성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이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말하는 사회

2025. 5. 1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가족 종교화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 예배,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해온 한국 문화 속에서 가족 중심의 종교생활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은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넘버즈 214호, 231호 참조). 목회데이터연구소의 '가족 종교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기독교인'인 비율은 배우자 82%, 자녀 79%로 기독교 종교 일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태신앙인 비율은 기독교 청소년의 58%, 20~30대 청년의 54%로, 저연령일수록 부모의 신앙이 곧 자신의 신앙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모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하게 보인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 신앙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 한편으로 가족 종교화 환경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려와 대안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종교화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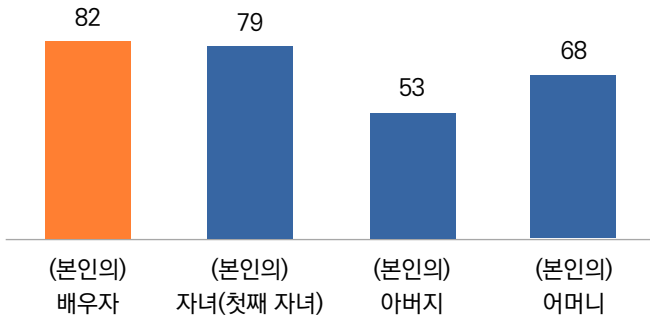
구 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1000명 조사의 경우)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목회자 조사의 경우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24일 ~ 6월 3일 (총 11일간)	2024년 5월 23일 ~ 6월 3일 (총 1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초기 신앙 형성] 어머니가 기독교인 경우, 아버지보다 더 많다!

- 현재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배우자’가 82%로 대부분 부부간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고, ‘자녀’ 또한 79%로 높은 편이었다.
- 한편 부모의 종교를 보면 ‘어머니’(68%)가 기독교인인 경우가 ‘아버지’(53%)보다 더 많아, 어머니를 통해 신앙이 전수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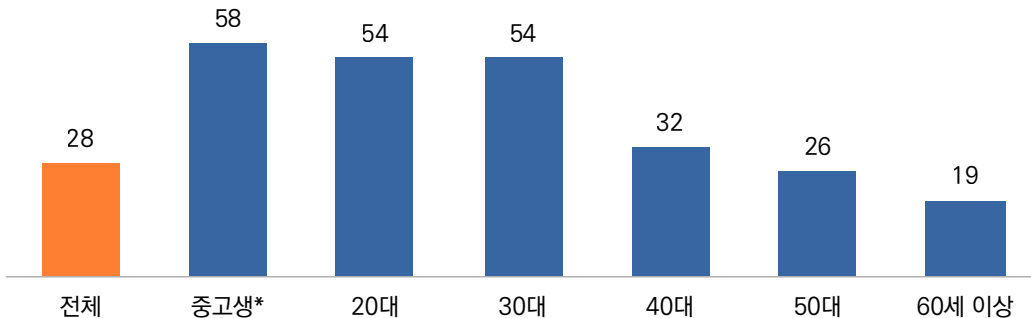
[그림] 가족 구성원의 종교가 ‘기독교인’인 비율 (출석교인, %)



중고생 모태신앙인 58%,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 현재 교회 출석자의 모태신앙인 비율을 보면 전체 기독교인 기준으로는 10명 중 3명 정도였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중고생’이 58%로 가장 높고, 20대 54%, 30대 54%로 젊은 층에서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32%, 50대 26%, 60세 이상 19%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모태신앙 비율 (출석교인,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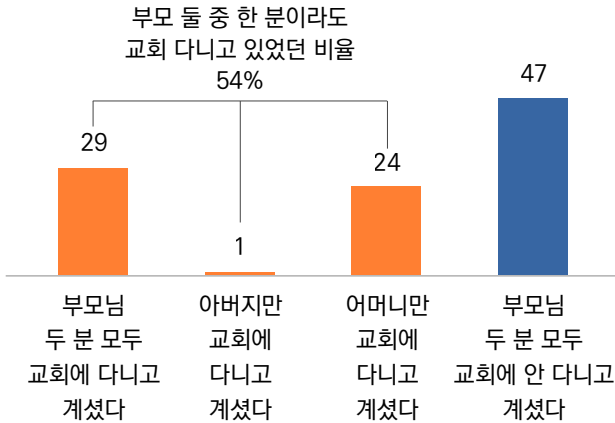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한국교회 트렌드(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2023.09. (교회 출석 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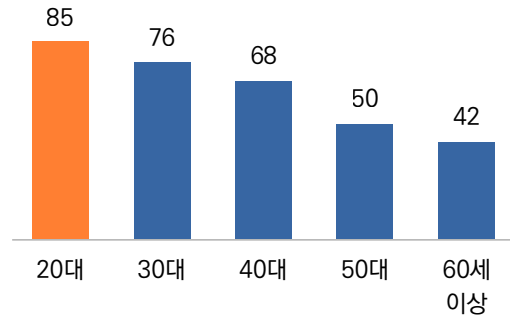
20~30대 대부분, 첫 교회 출석 시 부모 둘 중 한 분은 교회 다녔다!

- 처음 교회에 나간 시기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지를 묻은 결과, '부모 둘 중 한 분이라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85%, 30대 76%로 20~30대의 대부분은 첫 교회 출석시 부모 둘 중 한 분은 교회 출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 첫 출석 시 부모님의 신앙 여부 (출석교인, %)



[그림] '부모 둘 중 한 분이라도 교회 다니고 있었다' 비율 (출석교인,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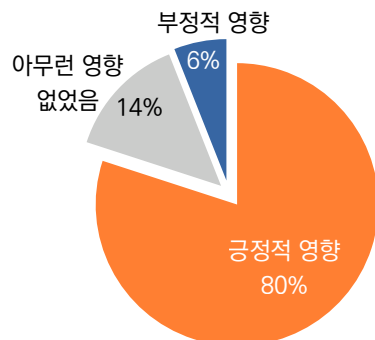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2

[자녀의 신앙 형성 과정에서의 부모의 영향] 어릴 적 부모와의 신앙생활, 10명 중 8명 '신앙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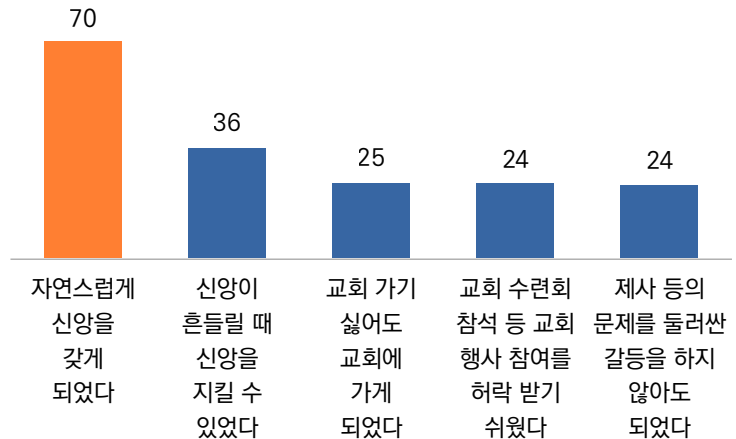
- 어린시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자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80%가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14%, '부정적 영향'은 6%에 불과해, 대부분은 부모와의 신앙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이러한 가족 중심 신앙생활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를 꼽은 비율이 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36%, '교회에 가기 싫어도 교회에 가게 되었다' 2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어린시절 부모님과 신앙생활한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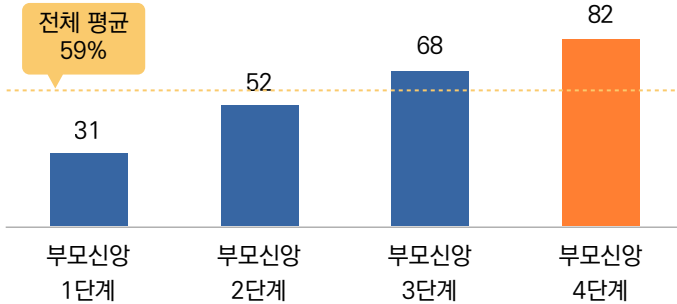
[그림]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긍정적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1+2순위, 상위 5개, %)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 이번에는 부모의 신앙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회 출석률(주일 학생예배 '자주 참석한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부모 신앙이 가장 약한 1단계인 경우 자녀의 주일예배 '자주 참석' 비율은 31%에 불과했으나, 4단계(82%)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신앙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부모 신앙단계별 자녀의 주일예배 '자주 참석한다'* 비율 (5~19세 자녀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출처 : 한국IFCJ 가정의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 (5세 이상~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기독교인)

*4점 척도

Note) 부모 신앙단계 측정 질문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아 배워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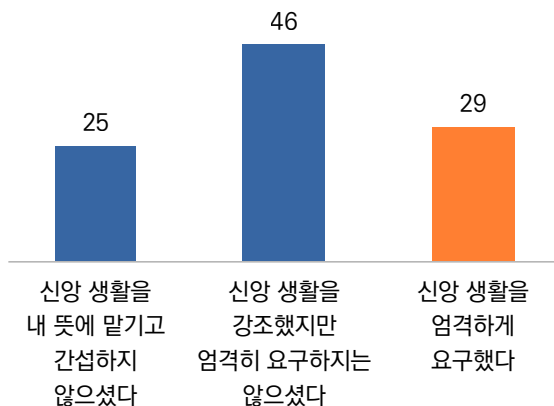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다.

4단계 :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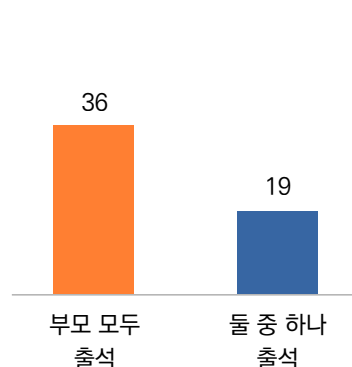
부모 모두 교회 다닌 경우, 자녀에게 '더 엄격한 신앙생활 요구' 경향 보여!

- 학창시절 부모님의 신앙교육 태도를 살펴본 결과, '신앙생활을 강조했지만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으셨다'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했다' 29%, '신앙생활을 내 뜻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으셨다' 25%로 나타났다.
- 다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한 비율은 부모가 모두 교회에 다닌 경우 36%로, 부모 중 한명만 교회에 다닌 경우(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부모님의 신앙교육관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



[그림] 부모 출석별 '신앙 생활 엄격히 요구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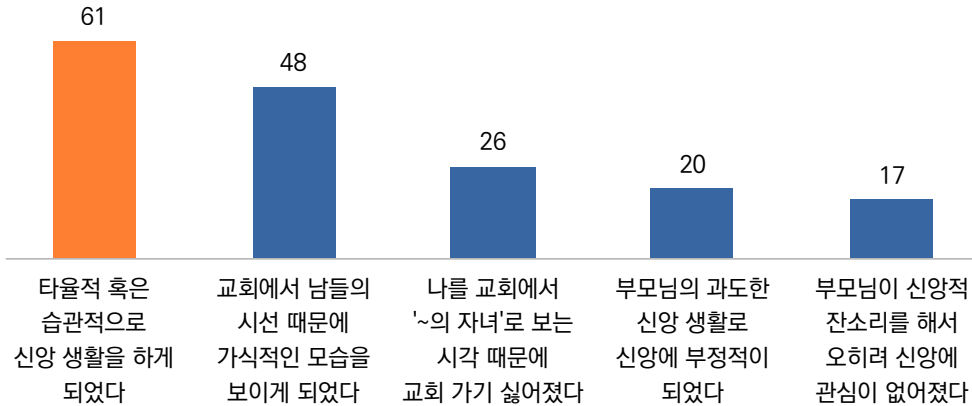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부작용, '타율적/습관적인 신앙생활'!

-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우, 부정적 영향으로는 '타율적 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회에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48%, '나는 교회에서 ~의 자녀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졌다' 26% 등의 순이었다.

[그림]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부정적 영향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1+2순위,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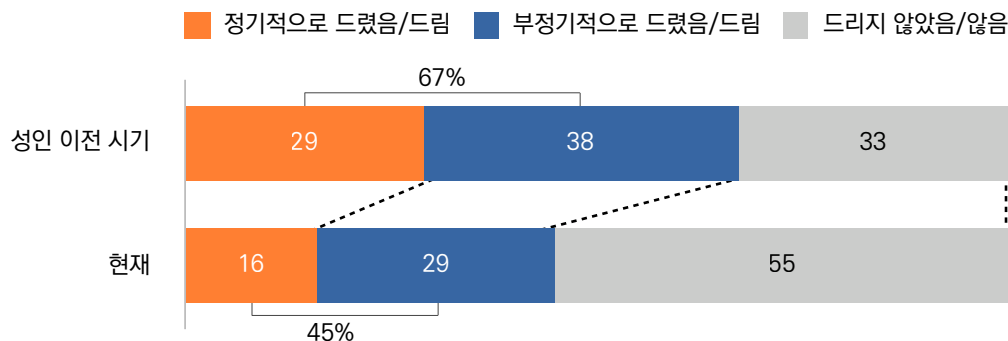
03

[가정예배와 신앙 계승]

'정기적' 가정예배, 성인 이전 29%→현재 16%로 크게 감소

- 성인 이전 시기와 현재의 '정기적' 가정예배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성인 이전 시기'는 29%인 반면 현재는 16%로 나타나 정기적 가정예배 경험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정기적·부정기적 예배를 모두 포함한 가정예배 경험률 역시 성인 이전에는 67%였으나 현재는 45%로 줄어,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정예배 실천이 크게 감소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성인 이전 시기 vs 현재' 가정예배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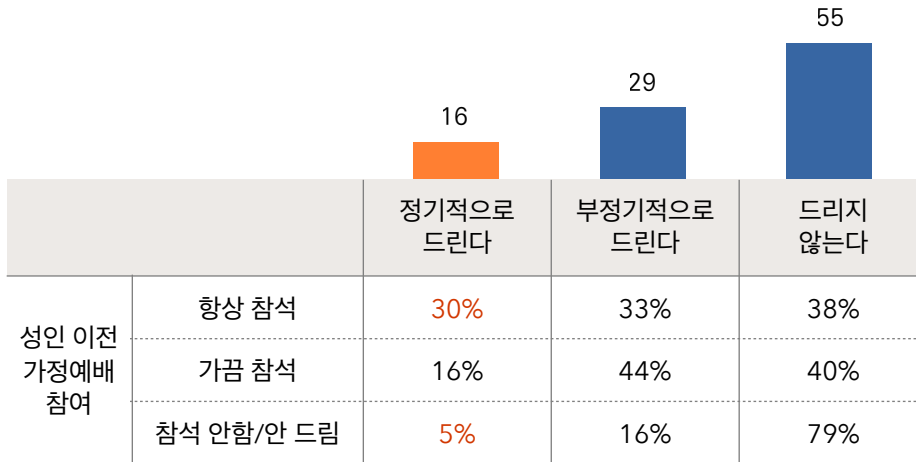


*'성인 이전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 교회 출석한 자 중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 자 대상, '현재'는 전체 응답자 대상

어릴 적 가정예배 드린 자가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높아!

- 현재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성인 이전 가정예배에 '항상 참석자'인 경우 30%로 '참석하지 않은 자'(5%)보다 훨씬 높아 어린 시절 가정예배 실천이 현재 가정예배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 이는 현재 3040세대의 가정예배가 다음세대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한국교회에까지 연결되는 지표라 하겠다.

[그림] 성인 이전 가정예배 참여별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출석교인, %)



출생순위가 낮은 자녀일수록 신앙 계승에 대한 부모 확신 낮아져!

-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의 신앙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부모에게 묻은 결과,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 안팎에 그쳤다.
- 출생 순위별로 살펴보면, 출생 순위가 낮은 자녀일수록 신앙 계승이 잘 안 되거나 확신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자녀의 신앙 계승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미성년 자녀의 신앙 계승 정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다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 받겠지만 부모보다 신앙생활은 잘 못할 것 같다 +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 잘 모르겠다
첫째 미성년 자녀	20%	48%	32%
둘째 미성년 자녀	19%	41%	39%
셋째 미성년 자녀	23%	3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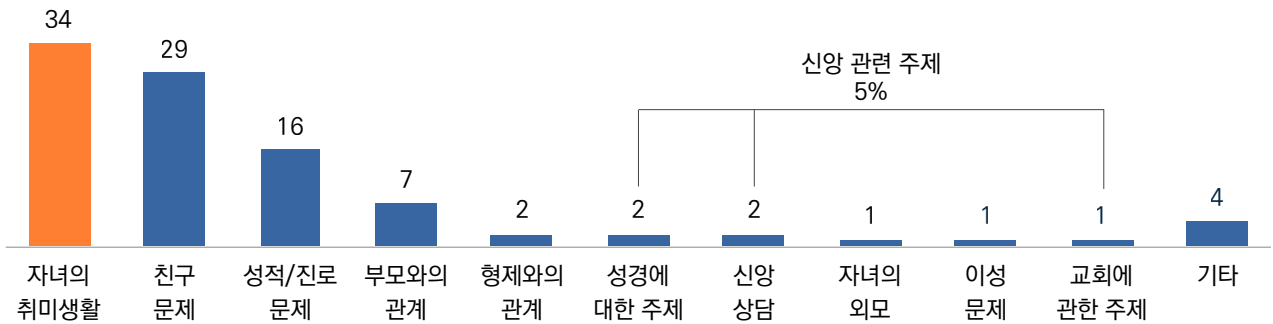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 2023.08. (전국 만 19~59세 남녀 중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전이며,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

04

[가정 신앙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평소 부모-자녀간 대화, 신앙 관련 주제는 5%에 불과!

- 학부모들에게 평소 자녀와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자녀의 취미 생활'이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 문제' 29%, '성적/진로 문제' 16% 등의 순이었다. 비신앙 주제가 전체 대화의 95%를 차지했고, '성경에 대한 주제', '신앙 상담' 등 신앙 관련 주제는 5%에 불과했다.

[그림] 자녀와의 대화 주제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1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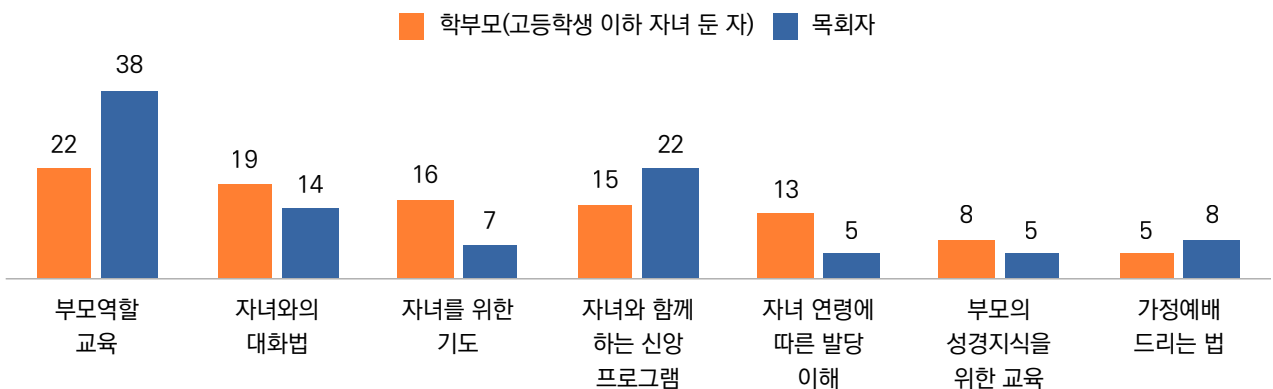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2024.01. (전국 교회 학부모 698명, 2024.01.05.~01.1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 주제, 부모역할 교육/자녀와의 대화법!

- 부모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는 무엇일까? 목회자와 학부모에게 각각 물었더니, 목회자의 경우 '부모 역할 교육'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학부모(고등학생 이하 자녀 둔 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아 목회자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모 교육의 우선 주제 (1순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2024.01. (전국 교회 학부모 698명, 담임목사 506명, 2024.01.05.~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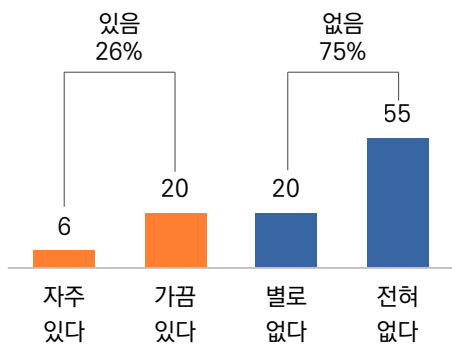
05

[가족 종교화 현상의 부정적 측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 4명 중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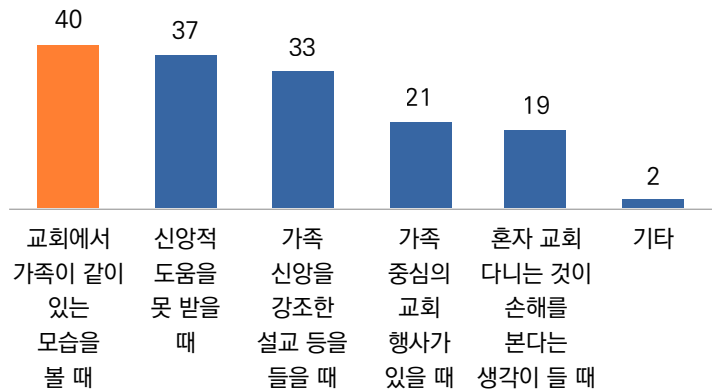
- 가족 중심 신앙생활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에서 비주류 소수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가족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비율은 전체의 8%로 10명 중 1명 정도 수준이었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는지를 묻은 결과, 절반가량인 53%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불편함을 느낀 상황(중복응답)은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40%, '신앙적 도움을 못 받을 때' 37%,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 등을 들을 때' 33% 등의 순이었다.
-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 4명 중 1명(26%)은 가족 중심적인 운영 환경 등으로 인해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의 소외감
(가족 중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그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의 불편함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자 기준, 중복응답, %)



이번호 요약

1. 부모 신앙 수준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도 높아진다!

- 부모의 신앙 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회 출석률('자주 참석한다' 기준)을 살펴본 결과, 부모 신앙 수준이 높아 질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어릴 적 가정예배 드린 자가 현재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높아!

- 현재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성인 이전 가정예배에 '항상 참석'한 경우 30%로, '가끔 참석'(16%) 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자'(5%)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는 어린 시절 가정예배 실천이 현재 가정예배 실천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3.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 주제, 부모역할 교육/자녀와의 대화법!

- 부모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를 목회자와 학부모에게 각각 물은 결과, 목회자는 '부모 역할 교육'(38%)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22%)을 1순위로 꼽아 목회자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신형섭 저, 두란노)

관련 성경 구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7절)

목회 적용점

한국교회 내 가족 종교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 심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이를 신앙 전수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배제 없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체계적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주일예배 참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릴 적 가정예배를 항상 드린 자가 드리지 않은 자보다 현재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모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자녀와 함께 하는 말씀 묵상, 일상 속 신앙 훈련 등 실천 가능한 내용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은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굳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도 기성세대와 나누는 교회내 소그룹 모임을 그대로 가정으로 갖고 들어오는 형태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단순히 잔소리 시간인 아닌 부모들도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녀도 삶을 나누는 형태의 소그룹을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교회 안에서 가족 중심 구조가 강화될수록 혈연 중심의 '씨족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자 교회 생활 하는 자들, 예컨대 이혼자, 한부모, 조손가족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소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 가족 중심 문화에서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혈연이 아닌 신앙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성소수자 관련 인식
2. 2024 여성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이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말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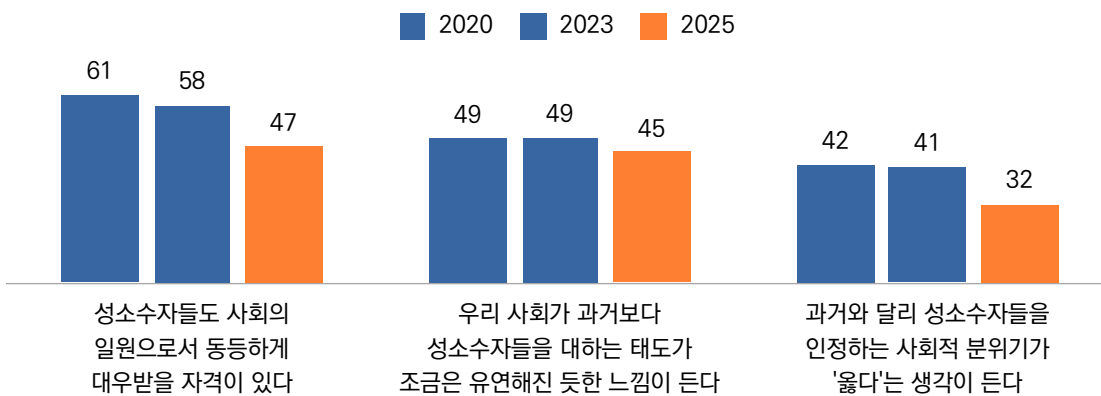


[성소수자 관련 인식]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2025 사회적 다양성 및 성 정체성 관련 인식 조사’(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5년 기준 ‘성소수자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응답은 47%로 2020년 61%, 2023년 5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 또, ‘과거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옳다는 생각이 든다’(32%)에 대한 동의율도 직전 조사(2023년 41%) 대비 10%p가량 하락해 전반적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보다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사회적 다양성 및 성 정체성 관련 인식 조사, 2025.04.24.(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3.20.~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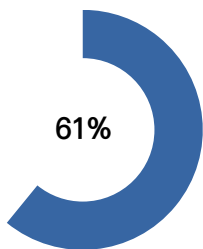
*4점 척도

우리 국민 61%, ‘성소수자의 등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회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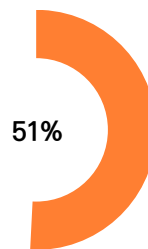
-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동의율), ‘성소수자의 등장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비율이 61%였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에도 국민 절반(51%)이 동의했다.

[그림] 성소수자 이슈 관련 논의 필요성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성소수자의 등장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사회적 다양성 및 성 정체성 관련 인식 조사, 2025.04.24.(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5.03.20.~03.24.)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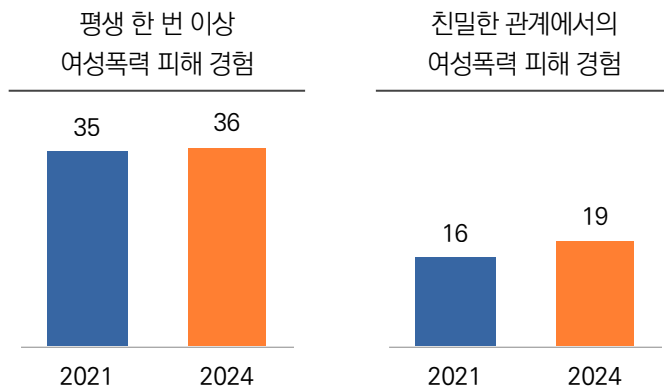


[2024 여성폭력 실태]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여성 5명 중 1명!

-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2024)'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유형별 실태 등을 살펴본다.
-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등 평생 한 번이라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36%였다.
- 한편,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비율은 2024년 19%로 5명 중 1명꼴이었으며, 3년 전 조사(16%)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 (만 19세 이상 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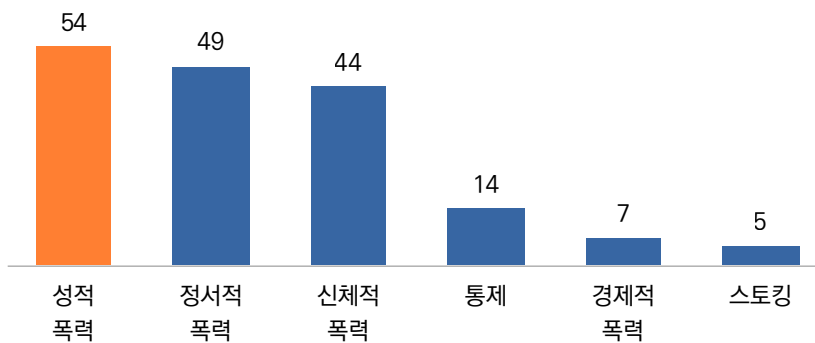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4.21.

여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 '성적 폭력' 피해 경험!

-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적 폭력'이 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서적 폭력' 49%, '신체적 폭력' 44%, '통제' 14% 등의 순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 유형 (19세 이상 여성,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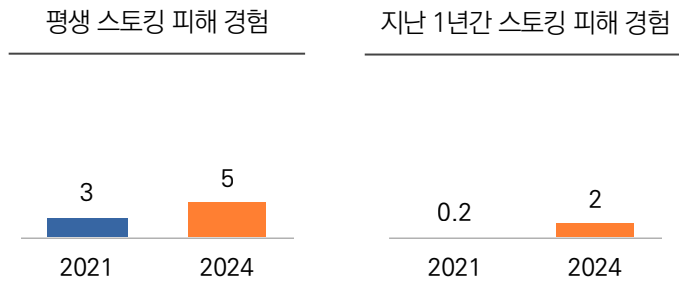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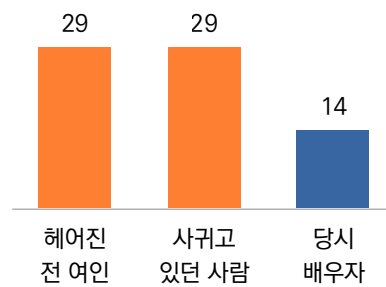
스토킹 피해 가해자,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아!

- 스톱킹 피해 경험을 확인한 결과, 평생동안 한 번이라도 스톱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2024년 기준 5%였고, 지난 1년간 스톱킹 피해 경험은 2021년 0.2%에서 2024년 2%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톱킹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29%로 가장 많았고, ‘사귀고 있던 사람’ 29%, ‘당시 배우자’ 14%로 (과거/현재의) 연인/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스톱킹 피해 경험 (19세 이상 여성, %)



[그림] 스톱킹 가해자 유형 (19세 이상 여성,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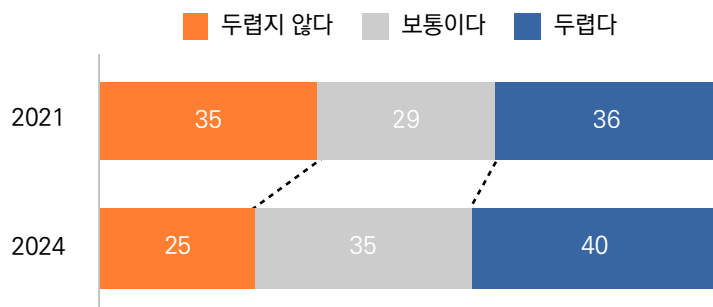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4.21.

성인 여성,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 입을까봐 두렵다’!

-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묻은 결과, 성인 여성 10명 중 4명이 평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21년 조사보다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10%p 감소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경각심과 불안감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세 이상 여성,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04.21.

*5점 척도

이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말하는 사회

이춘성 박사

(한기윤 선임연구위원)

A. 들어가며

지난 21세기 초반 2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깊은 내면의 격변을 겪었다.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치솟는 자살률,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 그리고 급격히 늘어난 이혼율이라 할 수 있다. 자살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몇 해를 제외하고는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높았고, 출산율은 작년 뉴욕타임스에서 “중세 흑사병 이후 최악의 재난”으로 묘사될 정도였다. 이혼율 또한 20세기 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기혼자 4명 중 1명 꼴로 1년 안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봤다고 답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의 이혼율과 자살율이 급등했던 전쟁전의 상황을 묘사한 체스터튼이 남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그는 ‘삶의 종말과 사랑의 종말은 전쟁의 기운의 전조’라 했고, 그 말은 예언처럼 들린다. 총성이 없는 시대라 해도, 삶이 사라지고 사랑이 메마른 세상은 결국 화색빛 절망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이름의 혁명을 꿈꾸게 될 것이며, 그 혁명의 끝이 반드시 평화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빈약한 기반 위에 서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높은 이혼율은 개인의 행복의 극대화가 아니라 비극의 서막일 수 있다. 다만 비극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은 이혼을 행복을 위한 장미빛 미래인 것처럼 자기 최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랑이 만약 더 심각한 비극과 절망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B. 현대 문화가 그리는 이혼: 자기 선택권

최근 이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첫 번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비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짝짓기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이후 시즌 6까지 방송되었고, 올해 말 시즌 7을 앞둔 ‘돌싱글즈’, 그리고 ‘나는 솔로’의 돌싱 특집, 50세 이상 돌싱을 위한 ‘끝사랑’ 등이 있다. 이처럼 이혼한 이들의 재혼을 주선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주로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지상파에서는 이혼한 남성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토크 예능도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위로의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이혼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은 ‘두 번째 사랑’에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흐름은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이혼은 결혼 서사의 부수적 에피소드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이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 대표작이 2018년 방영된,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최고의 이혼’이다. 이 드라마는 “결혼은 과연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혼을 자아 실현을 위한 주체적 선택으로 그려냈다. 과거 드라마가 외도, 도박, 폭력 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혼을 다루었다면, ‘최고의 이혼’은 행복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서의 이혼을 강조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4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54호 \(2025년 5월 2주\)](#)

- 투표 참여 의향,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통령 후보지지 강도 등

사회 일반

[2040 男女 “연애 말고 ‘이것’이 최우선”](#)

동아일보_2025.5.7.

[출생아 숫자는 줄었지만...“결혼 생각 있다” 3년 새 11%p ↑](#)

연합뉴스_2025.5.11.

[율화동 터지는 국민... 69% “세상이 불공정”, 85% “권력 비리 율분”](#)

동아일보_2025.5.8.

[영유아 부모에게 문화생활은 사치?...“무자녀 가구 대비 지출 ⅓”](#)

연합뉴스_2025.5.6.

[한국 '삶의 질' 세계 20위...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

연합뉴스_2025.5.7.

[전국 빈집 153만채... 부산·인천 내에서도 10% 넘어](#)

조선일보_2025.5.2.

["시간을 입출금하세요"...1인 가구서 뜨는 '타임뱅크' 뭉길래](#)

중앙일보_2025.5.3.

[\[단독\] 생활고에 라면 한봉지 ‘슬쩍’... 1만원 이하 절도 4년새 2배](#)

국민일보_2025.5.12.

[구글 검색 시장 독점 위협하는 AI 챗봇](#)

조선일보_2025.5.9.

[사흘 전 취소해도 '위약금 내라'... 골프장 3곳 중 1곳은 '불공정 약관'](#)

한국일보_2025.4.30.

아동 · 청소년 · 청년

[청소년들 살은 빠졌지만... 스마트폰탓 시력 나빠졌다](#)

매일경제_2025.4.29.

[15살 이전 음주 경험자,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 4배 증가](#)

한겨레_2025.5.5.

[성적 올리려? 10대 ADHD처방 10만명 넘어](#)

매일경제_2025.5.9.

[흑독한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삶 만족도’ 5.3점 불과](#)

국민일보_2025.5.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치매 환자의 '치매 머니' 154조... 동결되면 못 쓴다](#)

조선일보_2025.5.7.

경제 · 기업

["딸 등하원 맞춰 출퇴근 조정해요"...유연근무제 가속하는 대기업](#)

중앙일보_2025.5.2.

[KDI “韓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생산인구 급감 영향”](#)

조선일보_2025.5.8.

[생존알바 내몰린 작은 사장님 “부업 구하기도 힘들어요”](#)

중앙일보_2025.4.30.

[OECD 평균 노동 하려면...“11시간 연속휴식제·주 1일 휴일 보장”](#)

한겨레_2025.5.7.

국제 · 환경

[“부자로 죽지 않겠다” 빌 게이츠, 2045년까지 재산 99% 기부](#)

국민일보_2025.5.5.

건강

[‘노쇠’ 늦추려면... 고기-채소 편식 말고 계단 운동부터 시작](#)

동아일보_2025.5.8.

기독교 · 종교

[독일 무종교인 수, 사상 첫 기독교인 추월](#)

국민일보_2025.4.30.

[“몽골 목회자 60%가 여성... 가정사역 총력”](#)

국민일보_2025.5.8.

[“세계인들 다수 신의 존재 믿지만, 성경에는 무관심”](#)

기독교연합신문_2025.5.6.

트렌드

[\[엑시세대 활력 보고서\] 취미로 배운 인테리어로 창업한 배주현씨](#)

연합뉴스_2025.5.4.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전주참사랑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남기곤)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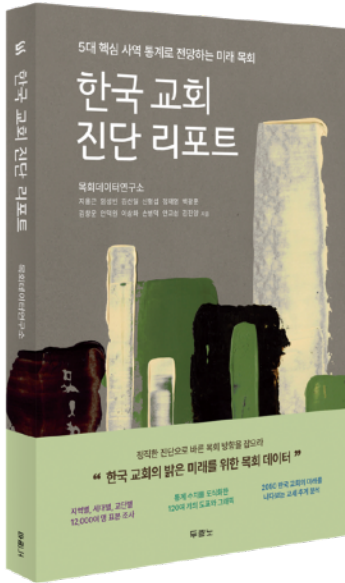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연구소 소식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큐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문화선교연구원 특별공동포럼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문화선교연구원에서 특별공동포럼을 진행합니다.

- 1) 주제 :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합의
- 2)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14:00~16:20
- 3) 장소 : 새문안교회 8층 드림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 4) 진행 : 온오프라인 포럼(현장 및 중계 동시 진행)
- 5) 문의 : 문화선교연구원(02-743-2535)



신청 링크



연구소 소식

라잇나우미디어 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1) 주제 : 작은 공동체가 만드는, 강한교회
- 2)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오전 10:30~12:30
- 3) 장소 : 힐링캠퍼스 더공감(서초구 명달로길 21) + 온라인 중계
- 4) 참가비 : 2만원(현장 참여는 선착순 30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5) 문의 : 라잇나우미디어(1533-7104)

데이터, 마케팅,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그룹 사역을 위한 실질적 인사이트!

			
패널. 01	패널. 02	패널. 03	Facilitator
구민정 교수 성균관 경영대학원(마케팅) '브랜드&커뮤니티'	이수인 교수 ACTS(기독교학과/미디어학과) '미디어 리터러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트렌드 2025'	우명훈 소장 세바시연사코치 RNMK교육개발연구소

rightnow MEDIA.

Small Group, Mega Impact

작은 공동체가 만드는, 강한 교회

라잇나우미디어
하이브리드 세미나

**5.19(월) 오전
10:30-12:30**

신청 링크